

대통령 취임사의 언어 특성 분석

김병홍(신라대)

<차 례>

1. 들어가기
 2. 대통령 취임사의 어휘 특성
 3.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 특성
 4. 마무리
-

【벼리】 이 연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하여 비교, 대조한 것이다. 분석의 기준은 어휘의 계량적 특성과 언어 표현의 수사적 특성이다. 어휘의 계량적 특성에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는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대명사의 순으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세 대통령 모두 명사의 경우 ‘국민, 여러분, 대통령, 정부, 정치’ 등의 어휘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명사의 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어휘는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문재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각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휘로 해석되었다. 언어 표현의 수사 특성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의 표현 유형을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파토스의 표현 유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에토스의 표현 유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대통령 개인의 연설문에 대한 취향일수도 있지만, 그 정권이 출범하는 시대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 대통령 취임사, 어휘 특성, 계량적 방법, 수사 특성, 과토스, 에토스, 로고스

1. 들어가기

이 연구는 대통령 취임사에 고빈도로 나타나는 어휘를 분석하여, 대통령의 대국민 설득을 위한 정치 행위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밝혀보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또한 설득을 위한 수사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펴서 대통령 취임사의 언어적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 행위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정치 언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다분히 언어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프레임¹⁾ 선점에 애를 쓴다. 특히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어떤 언어 프레임을 가지는가에 따라 승리와 패배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을 지낸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는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는다. 심지어 그는 "링컨은 언어와 의지로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렸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인의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²⁾.

그렇다면 대통령의 취임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대통령 취임사는 일반

1) 프레임(frame)은 세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깊숙이 자리 잡은 심적 구조, 곧 문화적 관례나 세상에 대한 믿음, 일을 처리하는 익숙한 방식,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등에 대해 특정하게 구조화된 심적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찰스 필모어(Charles Fillmore)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해 언어학에 도입한 개념이다. 조지 레이코프 또한 프레임은 인간이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라고 하며, 프레임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은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조지 레이코프 2007:22, 45).

2) [박보균의 세상 탐사] '통치는 언어관리다'(중앙SUNDAY 제97호, 2009년 1월 18일) 참조.

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장에서 국민을 향하여 자신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방침과 정치 철학을 밝히며 국민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쓴 공식적인 연설문의 한 종류로 이해된다.

곧,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 정치인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최초로 보여주는 정치 행위이자, 대국민 소통의 수단이다. 또한 취임사는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판단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에게는 그들의 요구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말해야 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이원표(2002:425)에서도 취임사는 정치적 성격을 띤 화자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정치적인 일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때 발견되는 특정한 장르의 담화로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화, 정치적 맥락을 생성하고, 국가의 현(current) 정치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³⁾.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정책 방향과 통치 철학, 자신과 다른 정치 지향성을 가진 세력과 소통 방법, 심지어 대외적으로 국가 간의 정치 현안과 외교 문제까지도 언급해야 하는 텍스트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대통령 취임사에 대한 연구로는 이원표(2002), 박정현(2003), 이재원(2013)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원표(2002)에서는 대통령 취임사를 하나의 장르로 보고 취임사가 가지는 수사구조를 친화관계, 취임식 성격, 정권 합리화, 신화 표현, 새롭게 해결할 과제와 정책 제시, 격려와 협력 요청 등으로

3) 나아가 이원표(2002:425-426)에서는 정치담화는 담화분석적인 측면에서 어떤 사회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거나 사회, 정치적 체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 취임사는 이런 사회, 문화적 변화 또는 이 격변기가 지향하는 정치적 이념을 반영하는 거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사의 목적 중 한 가지는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새 정부에 찬성하거나 반대함으로써 분열되었을 수도 있는 다양한 성격의 청자들에게 대통령 당선자 및 새 정부의 적법성이나 정통성 등을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분석하였다. 박경현(2003)에서는 국어 표현의 관점에서 대통령 취임사를 대통령과 국민을 표현하는 어휘, 어휘 선택, 문장 표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재원(2013)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를 키케로의 『생각의 수사학』(2007)에 기대서 착상력, 배열력, 표현력, 연설의 구조(들머리, 열거리, 버리, 마무리), 연설의 주제 등으로 하위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이하 김의 취임사)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이하 노의 취임사),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이하 문의 취임사)를 대상으로 대통령 취임사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어휘의 계량적 특징과 설득의 수사 표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취임사를 작성한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취임사를 쓴 세 대통령은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된 정당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성향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대통령의 취임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다. 곧,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여야 정권교체를 달성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양자대결⁴⁾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궐위로 인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다. 이렇게 달랐던 취임 상황⁵⁾이 대통령의 연설문에 사용된 어휘나 수사 전략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연구의 결과에서 그 의의를 찾아보려 한다.

세 대통령의 취임사를 대상으로 어휘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인 Malsem41을 이용하여 계량적 분석을 시도⁶⁾한

4) 실제 출마한 후보는 두 사람이 아니었지만, 선거 운동의 진행이나 투표의 결과는 이렇게 이해된 상황이었다.

5) 무엇보다 큰 차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국내외 귀빈 등 각계각층 인사 등 4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하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요 정당대표와 국무위원 그리고 군지휘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6) 어휘 분석과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말샘의 분석 결과를 엑셀(마이크로소프트 Excel2010)과 한컴오피스(한글2010)로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밟았다.

다. 어휘의 계량적 분석은, 특정 어휘가 텍스트에서 어떤 기능이나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어휘의 계량적 분석은 실제 언어 사용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휘 사용의 경향이 파악되는 장점이 있다.

2. 대통령 취임사의 어휘 특성

우리가 대통령의 취임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전 국민을 설득할 목적으로 쓴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연설 텍스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수사 전략이 구사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취임사는 고급 연설 텍스트로서 그 기능적 완성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상대를 끝없이 설득하고 협상이 필요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용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 김대중 정부는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아 많은 국정 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같은 정당에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다소 편안한 가운데 출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라크 파병과 같은 국제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출범하여 순탄하지 않은 시작을 한 것이다. 또한 문제인 정부는 일찍이 유래가 없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이 집권하여 새롭게 선출된 정부인데, 여소야대의 국회를 정치적 동반자로 삼아야 하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정부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인 취임사에는 어떤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2.1. 텍스트 크기

취임사의 텍스트 크기는 김의 취임사가 1,620어절(170문장), 노의 취임사가 1,172어절(145문장), 문의 취임사가 663어절(108문장)로 분석되었다. 각 품사별 빈도가 높은 순서를 보면, 김의 취임사는 명사>동사>부사>형용사>대

명사의 순으로, 노의 취임사와 문의 취임사는 명사>동사>형용사>부사>대명사의 순서였다. 그런데 실제로 형태소 분석을 해 보면, 조사나 어미, 의존명사, 보조동사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 어미와 같은 언어 형태는 그 자체만으로는 실질적 어휘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체언이나 용언에 결합하여 한 어절로 실현된다. 의존명사나 보조동사 역시 그것과 관련된 언어 형태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취임사의 어휘 특성을 파악하는 어휘 계량에서 제외한다. 곧, 실질적 의미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명사, 동사의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세 취임사의 어휘 특성을 밝혀보려 한다.⁷⁾ 각 취임사의 크기와 어절 수, 상위 빈도 10개의 명사, 동사의 어휘와 그 사용 횟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취임사 크기 (2.4:1.8:1)	문장 (1.5:1.3:1)	명사 (1.3:1.2:1)	동사 (2.2:2:1)
김대중(1620어절)	170문장	144회(10어휘)	146회(10어휘)
노무현(1172어절)	145문장	139회(10어휘)	131회(10어휘)
문재인(663어절)	108문장	115회(10어휘)	65회(10어휘)

<표 1> 명사, 동사의 어휘 수와 사용 횟수

<표 1>에서 보듯이 세 취임사의 크기(어절 수) 비율은 2.4:1.8:1가량 된다. 그런데 문장의 비율을 보면 어절 수와 차이가 많다. 곧, 세 취임사에 나타난 문장 수의 비율은 1.5:1.3:1이어서, 김의 취임사가 긴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10개의 동사 어휘는 전체 취임사의 크기와 사용 비율

7) 명사, 동사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인데, 이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명사, 동사에 비해 출현 빈도가 낮고(김의 취임사: 명사 1,072회, 동사 437회, 부사124회, 형용사 100회, 노의 취임사: 명사 759회, 동사 342회, 형용사 65회, 부사 59회, 문의 취임사: 명사 385회, 동사 190회, 형용사 60회, 부사 42회), 동일한 형태(형용사는 없다 11:6:5, 새롭다 7:6:8, 부사는 함께(같이) 17:4:5, 지금(이제) 4:5:3, 김, 노, 문의 취임사 순)가 나타나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슷한데, 명사의 사용 비율은 1.3:1.2:1로 나타나 세 취임사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김의 취임사가 크기가 다른 두 취임사보다 크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명사 어휘를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1) ㄱ. 그리고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 전임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34어절, 김의 취임사)
- ㄴ.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 여러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26어절, 노의 취임사)
- ㄷ.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20어절, 문의 취임사)

(1)은 많은 어절로 이루어진 가장 긴 문장을 각 취임사에서 뽑아 제시한 것인데, 김의 취임사가 가장 긴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문의 취임사에서 가장 긴 어절로 이루어진 문장 (1ㄷ)보다 더 많은 어절로 구성된 긴 문장을 김의 취임사와 노의 취임사에서 찾아보면, 각각 8회(김의 취임사)와 1회(노의 취임사)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의 취임사의 문장 길이가 다른 취임사보다 확연히 더 긴 것을 확인해 준다.

2.2. 명사

앞서 살펴본 것처럼 김의 취임사와 노의 취임사에서 상위 빈도 명사 어휘의 사용이 전체 취임사의 크기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아진 것은 두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명사의 쓰임이 문의 취임사보다 활발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곧,

김의 취임사와 노의 취임사에는 문의 취임사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명사가 사용됐다는 의미이다.

먼저 세 대통령의 취임사에 공통적으로 많이 쓰인 명사는 어휘는 ‘국민’(39회-1위, 21회-1위, 26회-2위, 이하 김-노-문 순서), ‘여러분’(24회-4위, 16회-4위, 8회-4위), 시대(11회-6위, 15회-5위, 3회-13어휘 공동 11위) 등이다. 이는 취임사가 대국민 연설문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라는 호칭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쓰인 어휘는 세 취임사의 차이를 보여주기 어렵다.

다음 각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명사 어휘를 살펴보자.

- (2) ㄱ. 김의 취임사: 경제⁸⁾(26회-2위, 5회-12위, 1회-순위 밖), 정부(25회-3위, 4회-17위, 2회-25위), 나라(12회-5위, 2회-순위 밖, 8회-4위)
- ㄴ. 노의 취임사: 동북아(없음, 18회-2위, 1회-순위 밖), 평화(3회-순위 밖, 17회-3위, 3회-공동 11위)
- ㄷ. 문의 취임사: 대통령(5회-20위, 4회-18위, 34회-1위), 대한민국(2회-순위 밖, 2회-순위 밖, 10회-3위)

(2ㄱ)을 보면, 김의 취임사에는 ‘경제’, ‘정부’, ‘나라’가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기가 IMF구제금융시대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 하에 ‘경제’를 부흥시켜야 ‘나라’가 살아난다는 것을 취임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의 취임사에서는 ‘오늘’과 ‘협력’(10회), ‘민주주의’(9회) 등도 고빈도로 나타나는데, 역시 IMF구제금융시대 국정위기를 맞아 ‘국민이 오늘의 위기를 상호협력하며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다.

8) 경제규모, 경제발전, 경제지원 등의 합성어로 존재하는 것도 ‘경제’와 관련되는 용어라 빈도에 포함하였다.

(2ㄴ)에서는 ‘동북아’, ‘평화’와 같은 어휘는 2003년 2월 우리나라가 처한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동북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시대임을 노의 취임사에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ㄷ) 문의 취임사에서는 위의 두 대통령의 취임사와 다소 다른 명사 어휘가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은 다른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 가능하지만, 그 빈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문의 취임사에는 ‘대통령’ 어휘가 압도적이라 할 만큼 고빈도로 나타나는 데, 이는 ‘대통령’이란 어휘를 주관적, 객관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3) 김의 취임사에서 ‘대통령’ 총 5회 사용

- ㄱ. 오늘 저는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일반적 의미: 직위)
- ㄴ. 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영삼 전임 **대통령**, 폰 바이체커 독일 전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전 **대통령**,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위원장 등 내외 귀빈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일반적 의미: 직위)
- ㄷ.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연상적 의미: 친근감)

(4) 노의 취임사에서 ‘대통령’ 총 4회 사용

- ㄱ.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일반적 의미: 직위)
- ㄴ.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대통령** 여러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축 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일반적 의미: 직위)
- ㄷ.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

다.(일반적 의미: 직위)

(5) 문의 취임사에서 ‘대통령’ 총 34회 사용

- ㄱ.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일반적 의미: 직위, 객관적 지칭 등 11회)
- ㄴ.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연상적 의미, 18회)
- ㄷ.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주관적 의미, 대통령=문재인=저=제, 5회)

(3)과 (4)에서 사용된 어휘 ‘대통령’은 지극히 일반적인 용어로서 ‘대통령’이 사용된 경우이다. 물론 (3ㄷ)은 개념적 의미의 ‘대통령’을 넘어 연상적 의미를 가지는 어휘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5)에서 사용된 어휘 ‘대통령’은 (5ㄱ)과 같이 사용된 경우와 (5ㄴ~ㄷ)처럼 사용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곧, 개념적 의미를 벗어나 사용된 (5ㄴ)의 경우와 ‘대통령’이라는 어휘가 바로 ‘문재인’, ‘저’, ‘제’와 같은 고유명사, 대명사로 바뀌 사용할 수 있는 (5ㄷ)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또한 문의 취임사에는 특별히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명되는 경우가 3회가 된다. 이는 김의 취임사나 노의 취임사에서는 볼 수 없는 경우였다. 이렇게 보면 문의 취임사에서 명사 ‘대통령’이나 ‘문재인’의 사용은 취임사의 주체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드러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시대 상황 때문에 대통령직에 오른 대통령으로서 다시는 그런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취임사에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보면, 김의 취임사나 노의 취임사에서 ‘대통령’이란 어휘는 다소 중립적인 어휘로 사용된 반면에, 문의 취임사에서는 언제나 ‘화자’와 ‘대통령’이 동일시 될 수 있는 어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탈권위적인 의미

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문의 취임사에는 ‘대통령’이 매우 주체적으로 사용된 어휘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매우 개혁적이고 추진력이 높은 정부가 될 것이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한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 곧, 문의 취임사에서 밝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2.3. 동사

동사는 문장의 서술어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세 취임사에서 다 같이 높은 빈도로 사용된 동사는 ‘만들다’이고, 보조동사로 ‘있다, 하다, 위하다, 되다, 나가다, 앓다’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만들다’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체로 아래 (6)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 (6) ㄱ. 정부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김의 취임사)
 ㄴ.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노의 취임사)
 ㄷ.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문의 취임사)

곧, (6)은 모두 보다 나은 국가, 정부, 사회 등을 ‘만들겠다’는 것을 표명하는 예시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는 이처럼 국민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어휘를 공통적으로 구사하기 때문에 ‘만들다’가 세 취임사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어휘로 분석되었다.

세 취임사에 각각 사용된 동사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어휘는 ‘극복하다’(김의 취임사), ‘비롯하다’(노의 취임사), ‘소통하다’(문의 취임사)로 제시할 수 있다.

- (7) ㄱ. 국민의 정부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우리의 경제적 국난을 극복
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입니다.(김의 취임사)
 ㄴ. 전통우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노의 취임사)
 ㄷ.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문의 취임사)

(7ㄱ)에 사용된 ‘극복하다’는 IMF구제금융시대 국정위기를 ‘극복’하자는 내용이 취임사에 많이 표현된 것을 알 수 있고, (7ㄴ)에 사용된 ‘비롯하다’는 “여럿 가운데서 앞의 것을 첫째로 삼아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포함하다.(표준국어대사전)”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노의 취임사는 ‘우방’이나 다른 여러 가지 현안과 우리의 처지 등을 함께 묶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7ㄷ)의 ‘소통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상황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파악한다. 곧, 전임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게 된 큰 원인이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서 자신은 국민과 소통을 잘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취임사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어미 형태 ‘-겠습니다’와 ‘-어야 합니다’가 취임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겠-’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로 풀이하고 있고, 허용(1983:244)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는 추측을 나타내며 말할이의 의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들을이의 의도를 묻기도 하는 씨끝’으로 설명하고 있다. 곧, ‘-겠-’은 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에 사용되는 문법 형태소이기 때문에 ‘-겠습니다’의 사용은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하는데 매우 적절한 어미 형태로 판단한다. 더욱이 동사 ‘되다’와 결합한 ‘되겠습니다’는 대체로 서술어로 사용되어 대통령의 의지를 뚜렷이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 (8) 가. 저는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국민과 함께
만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김의 취임사)
나. 저는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짓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김의 취임사)
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노의 취임사)
르.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문의 취임사)
로.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문의 취임사)

(8)은 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겠습니다’와 ‘되겠습니다’가 사용된 예시이다. 김의 취임사에서 ‘-겠습니다’는 전체 170문장에서 38문장에 사용되어 22.4%의 비율을 나타냈고, ‘되겠습니다’는 1문장에 사용되어 0.59%의 비율을 보였다. 노의 취임사에서 ‘-겠습니다’는 전체 143 에서 19문장에 사용되어 13.2%의 비율을 나타냈고, ‘되겠습니다’는 단 한 문장에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의 취임사에서는 ‘-겠습니다’가 전체 108문장 가운데 모두 62문장에 사용되어 57.4%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되겠습니다’도 모두 13문장에서 사용되어 12%의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노의 취임사에는 ‘되겠습니다’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더욱이 (8나, 르, 로)에서 보듯이, ‘되겠습니다’는 실제 문장에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의 형태로 실현되어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 또는 ‘권력에 대한 의지’로 해석해도 무방한 문장이어서, 노의 취임사에는 ‘대통령’스스로가 제시하려는 대통령의 모습은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 (9) ㄱ. 우리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전력
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김의 취임사)
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
어야 합니다.(노의 취임사)
ㄷ. 이제 치열했던 경쟁의 순간을 뒤로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문의 취임사)

(9)는 접속어미 ‘-어야’가 ‘하다’와 연결되어 나타난 문장들이다. 접속어미 ‘-어야’는 꼭 필요함을 나타는 어미인데, 앞에 오는 내용이 필연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취임사에서 ‘-야 하다’가 사용된 문장은 대체로 당위성을 가지는 문장으로서, 화자(대통령)가 청자(국민)에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어미 형태 ‘-어야 합니다’ 취임사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야 합니다’를 서술어로 사용한 문장은 김의 취임사에서는 17문장으로 10%, 노의 취임사에서는 26문장 18.1%, 문의 취임사에서는 3문장 2.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미 형태 ‘-겠습니다’, ‘되겠습니다’의 사용은 문의 취임사>김의 취임사>노의 취임사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야 합니다’의 사용은 노의 취임사>김의 취임사>문의 취임사 순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문의 취임사에서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주류(57.4%)를 이루고 있어서 대통령의 의지를 매우 뚜렷하게 제시한 담화문으로 볼 수 있고, 노의 취임사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 중심(18.1%)을 이루고 있어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하는 담화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 특성

일반적으로 수사학은 설득에 대한 학문으로 이해된다. 김옥동(2001:42)에서는 ‘말 잘하는 체주, 곧 말로써 남을 설득시키는 기술’이라고 규정한다. 표

준국어대사전에서도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 따위를 효과적·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수사학은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소통의 기제로 사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이사벨라페어클러프·노먼페어클러프(2015: 105~106)을 참조하면, 플라톤은 수사학을 나쁜 논증도 설득력이 있는 논증으로 보이게 하며, 청자를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수사학’이라는 용어 역시 조작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수사학이 변증법과 관련되며, ‘상황에 따라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을 아는 능력’이라며, ‘시민 담화의 기술(art of civic discourse)’로 정의하였다. 오늘날 많은 수사학 연구자들 또한 수사학이 기만, 꾀변, 조작과 관련된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이런 면에서 정치 담화와 수사학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곧,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소통하려는 취임사 역시 수사학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생산하는 최고의 연설 텍스트라는 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정제된 표현과 고급스러운 언어 전략을 가진 텍스트로 이해되지만, 대중의 정치적 성향을 자기편으로 유도하여,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이나 국가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지지해주기 바라는 목적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텍스트라고 이해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중매체에 보도된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을 접할 경우가 더러 있다.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에는 ‘정치 담화’와 ‘수사학’이라는 용어가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정치적 수사’는 대체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10) 「김동철 “文정부 외교·안보 무능..실망 넘어 실패”」(중앙일보 2017. 9.

6.) 기사에서 사용된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머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910109> 참조>

(10)은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대중매체의 기사인데, (10)은 국내 정치인이 사용한 것이고, (11)은 일본의 상황을 전하는 기사에 표현된 사례이다. (10)~(11)의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은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곧, 일반인들은 대체로 자연어의 사전적 개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한다. 예컨대, ‘정치적 수사’⁹⁾를 중립적으로 해석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필요한 말이나 글을 다듬은 표현’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언어 표현의 형식을 그럴듯하고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뜻이 전혀 없는 신뢰성이 낮고 공허한 진술을 하는 경우 ‘정치적 수사’란 표현으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¹⁰⁾.

이 글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대통령의 취임사를 대상으로 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설득 수사학¹¹⁾의 요소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중심으로

9)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치’, ‘적’, ‘수사’의 의미를 제시한다.

정치(政治):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적(的):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수사(修辭):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

10) 이사벨라페어클러프·노먼페어클러프(2015: 105)에서도 정치 연설이 ‘완전히 수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지도 않음에도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11) 아리스토텔레스는 연설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설득의 수단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화자의 인품에 있고(에토스), 둘째는 청중에게 올바른 (목적한) 태도를 자아내는 데 있으며(파토스), 셋째는 논거 자체가 그럴싸하게 예증되는 한에 있어서 논거

설득 수사 표현 유형을 밝혀보려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이귀혜(2007)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세 가지 설득 방식인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가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중요한 설득 기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식하고,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설득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통령들은 파토스>에토스>로고스의 순서로 설득 전략을 사용하였고, ‘국정관련 의도적 위기 유형’에서 특히 파토스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한국 대통령들은 에토스의 방식으로 ‘정권의 정통성’, ‘대통령의 신념’, ‘대통령의 처신’ 등에 대한 표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득 수사적 특징을 보인다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검토¹²⁾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 전략이 세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유형을 살펴본다.

3.1. 파토스

파토스(감성적 수사)는 청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표현 방법과 사람의 감정과 관련되는 요소이다. 곧, 대통령 취임사에서 파토스 전략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언어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감정과 정서를 동일시 하며 이해를 높이기 위한 표현, 공감할 수 있는 의향 표현, 주관적인 표현 등이다. 또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수준을 고려하여 표현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나, 시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유법, 실제 현실에서 보는 사례 제시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설득 전략이 실제 언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청유형 어미, 의문형 어미가 사용된 문장 표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형태로 ‘국민’이 주어로 등장하거나, 국민에게 특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문장 표현 등을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공감을 위한 의향 표현과 주관적

그 자체(로고스)와 관련을 맺는다고 하면서 설득의 수사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아리스토텔레스 *Rhetorique*, I, 1356a, 박성창, 2000: 46에서 재인용)

12) 여기서 제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수사 요소인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에 대한 설명은 김병홍(2007)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인 표현이 포함된 파토스의 예시 문장을 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찾아보았다.

	예시문(표에서는 김, 노, 문으로 약칭함)
공감 표현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으로 승화시켜 마침내 오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문)
감사 표현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운영할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노)
의향 표현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김)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노)
요구 표현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뜻하게 감싸주어야 합니다.(김)

〈표 2〉 파토스 예시문

〈표 2〉는 파토스의 유형을 공감, 감사, 의향, 요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인데, 국민의 정서적, 감정적 표현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나, 화자나 청자의 정서나 감정을 동일시하는 표현은 파토스가 사용된 설득 전략으로 볼 수 있다.

3.2. 에토스

에토스(신뢰적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공신력이나 카리스마를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격’, ‘관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민족적, 사회적인 관습을 말한다. 이를 정치 담화에 적용하면, 에토스는 대통령 취임사를 청중이 신뢰할 수 있도록 연설자(대통령)의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상식과 예의를 지키고, 인신공격, 비방, 욕설, 조롱 등을 삼가려는 자세에 대한 것이다.

박성창(2000: 47)에서도 에토스는 청중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변론가가 지녀야할 성격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작가의 인격을 의미하는 동시에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

는 관습, 가치관, 습성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에토스가 사용된 문장의 언어 형태는 주어가 대개 ‘대통령’, ‘저’, ‘정부 여당’ 등으로 나타나고, 서술어에는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겠-’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내용은 대통령의 믿음, 의지, 정책 방향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예시문을 찾아 제시한다.

	예시문
믿음 표현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문)
의지 표현	국민의 정부는 수출 못지않게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 힘쓰겠습니다.(김)
정책 방향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노)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이를 맡기겠습니다.(문)

〈표 3〉 에토스 예시문

에토스는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에 대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표 3〉에서처럼 대통령과 정권이 문장의 주어이면서 대통령의 신념, 대통령으로 가져야 할 의지, 대통령이 앞으로 취할 정책의 방향 등을 강조한 문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3.3. 로고스

로고스는 원래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 그 자체에서 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대통령 취임사에서 로고스는, 정확한 논거, 객관성이 높은 사실 등과 관련된 문장으로 표현된다. 곧, 사실, 정당성, 근거 자료 등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를 중심으로 청중을 설득

하는 경우가 로고스(이성적 수사)에 해당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설득은 언제나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높다. 따라서 정치인은 대중과 의사소통을 할 때,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근거는 충분한지, 논리적 모순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실제로 취임사에 사용된 문장 가운데 로고스가 강한 문장들은 길이가 긴 편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의 정당성을 위해 문장을 구사하다 보면, 그 길이가 에토스나 파토스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로고스를 사용한 문장들을 찾아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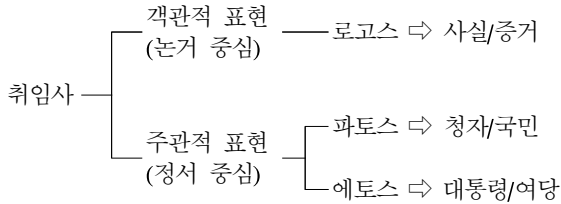
	예시문
정당성	관광산업, 회의체산업, 영상산업, 문화적 특산품 등 무한 한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부의 보고입니다.(김)
사실 표현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노)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졌습니다.(문)
상황 표현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로부터,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김)

〈표 4〉 로고스 예시문

로고스는 〈표 4〉에서처럼 객관적 사실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문장이 많다. 또한 정당성,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장의 경우 에토스와 다소 혼동할 염려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사에서 로고스는 문장의 종결 어미가 ‘-입니다’의 형태를 취하는데 반해, 에토스는 ‘-겠습니다’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 유형은 객관적 논거를 중심으로 표현한 문장과, 주관적 정서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나눌 수 있고, 주관적 표현 문장에서는 청자인 국민을 중심에 두고 표

현한 문장과 화자인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표현한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취임사의 개별 문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표 5>.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 유형

<표 5>의 기준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세 가지 요소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의 수사 유형을 사용한 사례를 세 대통령의 취임사에 적용하여 수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가 <표 6>이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김대중(170문장)	66문장(38.8%)	55문장(32.4%)	49문장(28.8%)
노무현(143문장)	95문장(66.4%)	32문장(22.4%)	16문장(11.2%)
문재인(108문장)	27문장(25%)	74문장(68.5%)	7문장(6.5%)

<표 6>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 유형

그런데 대통령의 취임사를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의 수사 유형으로 분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귀혜(2007:283)에서도 “모든 연설에서 특정 에토스는 청중에게서 파토스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요소는 융합될 수 있다. 에토스와 파토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

스와 키케로 등의 개념정의를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에토스 자체의 개념 정의, 파토스개념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각각의 설득요소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의미 규정을 해보려고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에토스와 파토스의 경계선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에토스와 파토스의 구분이 어렵다고 한 바 있다.

4. 마무리

이 글은 세 명의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였는가를 어휘의 계량적 특성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수사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다.

한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그리고 정치 세력과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가 대통령의 취임사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그 속에 국정 운영의 목표, 국가의 미래와 이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그 실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한 결과, 어휘의 계량적 특성과 수사 유형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세 대통령의 취임사의 특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취임 시기와 상황에 따른 차이로 볼 수도 있고, 세 대통령의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

먼저 어휘 사용의 빈도를 살펴보면, '민주주의', '극복하다'(김의 취임사)와 '동북아', '비롯하다'(노의 취임사), '대통령', '소통하다'(문의 취임사)가 두드러진 차이를 드러내는 어휘로 볼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며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IMF구제금융시대를 '극복하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취임함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주변 우방 국가와의 관계를 '비롯한'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능력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대통령의 취임사의 어휘와 수사 유형을 분석하면서 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문재인 정부로 불리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수사 유형에서도 세 취임사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김의 취임사에서는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의 수사 유형이 골고루 나누어져 설득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노의 취임사나 문의 취임사에서는 특정한 수사 유형이 매우 적극적으로 설득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취임사의 어휘 특성에서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곧, 노의 취임사에서는 ‘-어야 합니다’ 문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국민(청중)의 감정과 동일시하려는 파토스 전략이 취임사에서 구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의 취임사에서는 ‘대통령’, ‘문재인’을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에토스 전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욱이 ‘-겠습니다’ 문장이 57.4%나 사용되어서 대통령 스스로가 지향하는 바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에토스 전략을 구사한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 문헌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병홍(2007), 「신문 머리기사 제목의 설득 전략 분석」, 언어와 언어학 제39집 37~55쪽.
- 박성창(2000), 『수사학』, 문학과 지성사.
- 이귀혜(2007), 「한국 대통령들의 설득 수사학」, 한국소통학보 제8호 276~312쪽.
- 이사벨라페어클러프·노먼페어클러프(2015), 『정치담화분석』, 김현강·신유리 옮김, 박이정.
- 이원표(2002), 『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 이재원(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제35집 229~254쪽.
- 박경현(2003), 「대통령 취임사의 국어 표현」, 『텍스트 분석의 실제』, 도서출판역락.
-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2007), 『프레임 전쟁』, 나익주 옮김, 창비.
- 허 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김병홍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051-999-6269
wetheroad@silla.ac.kr

접수 일자: 2017. 9. 10.
심사(수정, 재심) 일자: 2017. 9. 15~2017. 10. 7.
게재 확정 일자: 2017. 10. 15.

<Abstract>

An Analysis of Linguistic Features of Presidential Inaugural Addresses

Kim Byoung-Hong(Silla Univ.)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presidential inaugural addresses of Kim Dae-jung, Roh Moo-hyun and Moon Jae-in. Lexical quantitative features and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expressions are used as the criteria for the analysis. In terms of lexical quantitative features, President Kim Dae-jung used noun, verb, adverb, adjective and pronoun in order of frequency while President Roh Moo-hyun and Moon Jae-in used noun, verb, adjective, adverb and pronoun. In case of noun, all three presidents said 'people, everyone, president, government, politics' in common. The most distinguished noun is 'democracy' by President Kim Dae-jung, 'Northeast Asia' by President Roh Moo-hyun and 'president' by President Moon Jae-in. These noun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eriod in which each government was launched. For rhetorical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expressions, it is found out that President Kim Dae-jung used mixed expressional patterns of pathos, ethos and logos properly. However, it is analysed that president Roh Moo-hyun actively utilized pathos expressional pattern while president Moon Jae-in made an active use of ethos expressional pattern. These findings may indicate each president's personal propensity, but situations which each government faced when it came to power are thought to have played a significant part.

* Key words : presidential inaugural address, lexical features, quantitative method, rhetoric characteristics, pathos, ethos, logos